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

신상준**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논의
2. 개인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3. 사회자본과 삶의 질

Ⅲ. 연구설계
1. 연구 모형
2. 조사 설계

Ⅳ.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2. 각 변수별 평균 및 상관관계
3.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 이 논문은 신상준의 석사학위논문(2012)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832).

** 성균관대학교 공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교신저자(E-mail: sangjoon415@gmail.com, Tel: 02-740-1835)

Ⅰ. 서론

국내외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각종 사회문제가 출현함으로써 삶의 질은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은 삶의 질을 객관적 혹은 주관적 지표로 설명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 지표는 비교연구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특정 상황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김재홍 외 1998). 반면, 주관적 지표는 해당 시민들의 상황에 따른 특수한 맥락을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비교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통합적 접근방식은 두 가지 접근법의 장점을 취하여 삶의 질을 연구하려는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김진욱 2000).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군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을 설명한다고 주장하거나(Easterlin 1974), 심리학자들은 신체의 건강요인을 중요하게 참고하기도 하고(Diener & Diener 1995), 일각에서는 가족 만족도 역시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로 제시하곤 한다(Sirgy et al. 2000). 한편,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지역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Myers 1987).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는 사회자본 변수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8년 6월 건강 자료(Health Data)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국이며, 전체 사망자 중 51.4%가 자살로 죽은, 10년째 자살률 1위 국가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의 사회자본 연구들은 시민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 사회자본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집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한다(Evans 1996, Ostrom and Ahn 2003; Kay 2006). 삶의 질과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흐름에서는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Requena 2002; Helliwell and Putnam 2004; 한세희 외 2010). 특히 경제적인 만족감보다는 사회자본이 더 크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거나(Bjørnskov 2003),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요인이 결합할 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한 연구들이 있다(박희봉· 이희창 2005).

다만,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 요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두 요인을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로 상정하여 연구하는 흐름은 많지 않은데, 이는 사회자본이 단순히 집단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간주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한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어떠한 관계를 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 사회자본과 개인의 생활환경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생활환경은 개인이 인식하는 특정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고, 사회자본은 '개인을 통해 매개된 사회'인 신뢰와 네크워크로 인식한다. 주지하듯 주관적인 삶의 질 측정은 지역별 비교연구가 아닌,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연구할 때에 장점을 보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사회자본 요인 역시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전제는 개

인이 인식하는 생활환경과 사회자본 변수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가진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는 201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인구가 약 280만 명이며, 외국인은 약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2]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변수별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한편, 인천광역시의 시민들을 상대로 삶의 질 측정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 이 연구가 도시연구 차원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배경에는 대공황 이후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가 여전히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부 서구국가에서는 경제적 성장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고, GDP 중심의 경제 성장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삼는 삶의 질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이희길 · 심수진 2010).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은 복잡한 구성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정책적 측면에 적용하여 실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도래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조경호 · 김미숙

2)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1년 하반기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인구를 201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2000). 삶의 질에 대한 연구경향은 대체로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로 객관적 생활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식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으로 삶의 질은 개인을 둘러싸는 환경적인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Veenhoven 2002). 두 번째로 주관적인 지표로 측정해야한다는 접근법은 객관적 지표가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부적합하며,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객관적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여 등장한 방법이다(이영균·김동규 2007).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경향이다. 이 접근법은 객관적 삶의 지표는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주관적 삶의 질은 국가 혹은 지역간 비교를 진행할 경우에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방식이다(김진욱 2000).

첫 번째로 객관적 삶의 질로 접근하는 연구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삶의 환경이 인간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 출발한다(하혜수 1996). 객관적인 삶의 질을 옹호하는 접근법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다. 또한 주관적 지표의 사용은 특정 지역의 삶의 질 분석에는 유용하지만, 지역간 혹은 국가간의 삶의 질을 비교분석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를 요청한다(김재홍 외 1998).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체로 국가간 혹은 지역간에 비교연구를 진행한 경향이 강하다(Liu 1974; Slottje 1991; 김재홍 외 1998; 김진욱 2000; 서승환 2005).

주관적인 삶의 질로 접근하는 연구들은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지표로 삶의 질을 측정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객관적 삶의 질이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은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지표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임희섭

1996).[3]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경제수준의 타 국가에 비해 삶의 질이 낮다는 점도 주관적 지표로 삶의 질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이희길·심수진 2010). 아울러 Veenhoven(2002)은 정책결정자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주관적 지표로 삶의 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입각한 연구들은 개인이 인식하는 환경이 전반작인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조경호·김미숙 2000; 박종민·김서용 2001; 박길성 2002; Helliwell & Putnam 2004; 오영석·이곤수 2006; 이영규·김동규 2007; Yip et al. 2007; 송건섭·권용현 2008; 한세희 외 2010).

마지막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방법이다. 통합적 접근법이 등장한 이유는 객관적 삶의 지표와 주관적 삶의 질 측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즉, 객관적 삶의 질 지표는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주관적 삶의 질 측정은 국가 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김진욱 2000). 통합적인 접근법은 개인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및 불만의 정도로 삶의 질을 정의하여 연구하며(한석태 2008),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임희섭 1996; 김미숙·조경호 2000; Requena 2002; Drukker et al. 2003; 한석태 2008).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한정되어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연구하기 위해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삶의 질은 객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지한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삶의 질을 연구

3) 임희섭(1996)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기대수준(internal referent)과 외재적인 준거(external referent)는 다르다고 언급한다.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삶의 지표로 측정하는 방법이 타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주관적인 지표로 측정한다.

2. 개인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삶의 질은 행복과 주관적·심리적 안녕, 웰빙 등 여러 가지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된다. 다만 이러한 개념들의 차이점과 유사점, 이들 간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나, 이 개념들의 혼용범위가 넓어 이들의 관계를 모두 규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삶의 질과 행복의 개념에 한정하여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김병섭 외 2015). 여러 논자들은 주관적인 삶의 질과 행복을 동일하게 규정한다(Blanchflower & Oswald, 2004; Esterlin 2005). 앞선 논의에서 확인하였듯이, 삶의 질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한정시킨다면, 이는 분명히 행복과 구별되는 개념이다(Erikson 1993). 다만 객관적인 삶의 질을 주관적인 부분과 구별된다면, 주관적인 삶의 질은 행복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선행연구의 특징이다(구교준 외 2014). 이 연구는 삶의 질을 주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 때문에 행복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자하고, 이후 선행연구의 검토 과정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행복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개인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명변수 중에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소득과 주관적인 삶의 질의 관계는 Easterlin(1974)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득과 주관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소득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진 소득의 상대적인 위치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구교준 외 2014, 324). 즉, 개인의 소득은 절

대소득의 기준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상대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오영석 · 이곤수 2006; 송건섭 · 권용현 2008).

소득과 더불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신체적인 건강 요인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고려된다. 신체의 건강과 주관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제법 확인이 이루어졌다(Diener & Diener 1995; Hellwell & Putnam 2004; Subramanian et al. 2005). 국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만족감이 전반적인 삶의 질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영규 · 김동규 2007; 한세희 외 2010). 이들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존감이나 성격,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에 대한 만족감 등이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주관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Sirgy et al. 2000), Donovan & Halpern(2003)은 영국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자가 독신자에 비해 더 긍정적인 삶의 질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한준 2015, 74에서 재인용).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중 · 고령자와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은 가족관계가 중요한 영향변수임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증분석으로 확인되었다(조경호 · 김미숙 2000; 강소랑 · 문상호 2012; 한준 2015).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도시연구 측면에서도 확장되어 진행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계획(urban planning)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보인다. 가령, 지역사회의 질(community quality of life)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현안이 무엇인지 분석한다(Myers 1987). 그리고 Sirgy et al.(2000; 2008)은 삶의 질 연구를 통해 한 지역 내에 공공서비스의 도출과 서비스 개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공환경에 초점을 둔 삶의 질 연구들은 정부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거나, 한 지역의 개선이나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명철 · 최상옥 2012).

국내에서도 공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삶의 질 연구가 실증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안전 · 보건 · 복지'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행정과 참여)'(김태룡 외 2000), 그리고 지역사회의 만족도(조경호 · 김미숙 2000)와 공공서비스 수준(이영규 · 김동규 2007) 등이 연구되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서비스나 생활편의시설 등이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송건섭 · 권용현 2008; 이태종 외 2005; 송건섭 2008; 고명철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개인의 환경적인 만족도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소득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건강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가족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자본과 삶의 질

사회자본은 개인들 간의 집단적 행동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한다(Evans 1996; Requena 2002; Ostrom and Ahn 2003; Kay 2006). 사회자본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들 간의 협동이 어떠한 동기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다(유석춘·장미혜 2002).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배태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자본과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이후 Putnam(1993)이 사회자본을 공적·정치적 영역으로 확장시켰는데, 그는 사회자본을 집단행동을 촉진시키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4)]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집단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자본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사회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첫 번째로 개인의 연결망에 배태되어 있는 자본으로 보는 입장이다(Burt 1997; Granovetter 1973; Lin 1999; 2001). 이러한 입장은 사회자본을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회관계에 개인이 어떻게 투자하고, 관계망에 배태된 자원을 어떻게 차지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Lin 1999; 2001).[5)] 그리고 Granovetter(1973)는 약한 연대

4) Putnam(1993)은 이탈리아의 북부와 남부지방을 연구하면서 북부는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활발하고, 호혜성의 규범이 확정되어 있어 수평적 연대가 가능하고 이러한 연대를 통해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사회정치적 관계가 수직적 형태를 이루고 있어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5) Lin(2001)은 개인의 지위(position), 연대(tie), 위치(location) 등의 특징으로 사회자본에 접근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더 나은 사회자본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연대가 강할수록 자원의 공유와 교환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weak tie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강점을 제시하였고, Burt(1997)는 구조혈(structure hole)에 위치한 사람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연결망에 배태된 자본을 연구하였다. 즉, 이들은 사회자본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으며, 개인은 사회자본으로 어떠한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Glaeser et al. 2002).

두 번째로 사회자본을 집단행동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이나 경제·사회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혹은 문화 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North 1990; Grootaert and Bastelater 2002; Ostrom and Ahn 2003; 김태룡 2006). 이러한 입장은 집단적 차원에서 멤버들의 삶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에 초점을 둔다. North(1990)는 공식적인 제도능력에 따라 집단적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집단의 능력은 공식적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개념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개념화하기에는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Portes 2000; Ostrom and Ahn 2003; 소진광 2004).

사회자본을 다양하게 정의하는 만큼,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소 역시 연구마다 상이하다. 사회자본을 사회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관계와 연결망, 결사체의 참여 요인으로 바라보거나, 타인을 신뢰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전자의 입장은 사회자본을 네트워크로 인지하는 관점으로 Granovetter(1973)[6]의 연구에서 출발할 수 있다(Woolcock and Narayan 2000). 그는 약한(weak) 연결망과 강한(strong) 연결망의 차이는 약한 연결망이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고 넓은 유대관계를 지닌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Woolcock and Narayan(2000)은 사회자본에서의 네

6) Granovetter(1973)의 약한 유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에서 강한 유대관계(strong ties)는 약한 유대보다 상대적으로 집단행동을 형성하지 못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례분석으로 약한 유대관계를 지닌 도시가 상대적으로 원활한 집단행동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의 도시재개발에 성공적으로 저항하였음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트워크 관점은 수직적·수평적 연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그들에 의하면 공동체와 집단 내의 결속을 이어주는 수직적 연대 없이는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으며, 아울러 수평적 관계가 없다면 중요한 정보와 집단행동 실시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사라진다고 언급한다. 이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는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Harpham et al 2002).

다음으로 사회자본을 타인의 신뢰 수준으로 인식하는 접근이다. 신뢰는 한 행위자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확률의 수준으로 정의한다(Ostrom and Ahn 2003). Kay(2006)는 집단행동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였고, 나아가 관민 협력 거버넌스의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숙종 외, 2008).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하며,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로는 개인이 인식하는 네트워크와 신뢰로 규정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길성 2002; Requena 2002; Bjørnskov 2003; Helliwell and Putnam 2004; Gundelach and Kreiner 2004; 박희봉·이희창 2005; Mulder et al 2005; Yip et al 2007; 한세희 외 2010).[7]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에 따라,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와 네트워크로 선정한다. 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으로 보고, 네트워크는 단체참여와 지인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타인을 신뢰할수록 삶

7) 각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삶의 질로 측정하였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행복으로 선정하거나(Gundelach and Kreiner 2004),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다(한세희 외 2010). 엄연하게는 이들 모두 상이한 개념이지만,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로 인용하였다.

의 질을 높인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박길성, 2002; Yip et al 2007). 그리고 단체참여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으며(Bjørnskov 2003; Hellwell and Putnam 2004), 국내 연구에서는 단체참여와 지인의 네트워크가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한세희 외 2010).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관계 변수인 사회자본을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8)]

가설6: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지인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단체참여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생활환경 만족도와 관계변수인 사회자본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경제적' 측면과 '지역사회·행정'측면으로 나누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을 측정하였고, 사회자본은 '신뢰'와 '네트워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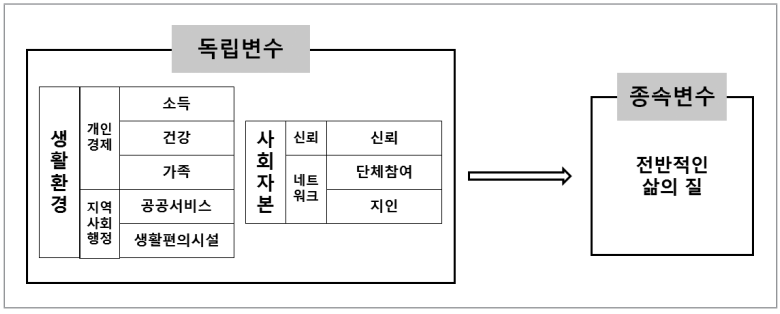
8)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사회자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Gundelach and Kreiner 2004; Mulder et al 2005; 박희봉 · 이희창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인천광역시 시민들 역시 동일한 연구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독립변수인 생활환경에 대한 하위변수로 선정한 개인·경제적 측면은 소득·건강·가족으로 분류하였고, 지역사회·행정 변수는 공공서비스·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소득·소득의 적정수준·자립도·소비수준·수입원·미래준비·저축 수준 등으로, 건강 만족도는 영양상태·건강에 대한 자신감·건강관리·보험·의료 서비스·체중관리·정신건강 등으로, 가족 만족도는 의사소통·친척관계·가정생활·가족간 공유시간·가정 분위기·가족간 도움·결혼 생활 등으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행정 차원의 만족도는 공공서비스와 생활편의시설로 구분하였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교통·치안·쓰레기·상하수도·공무원친절·경찰·도로망 등으로, 생활편의시설 만족도는 음식점·주거 공간·공원·시설 안전·도서관·문화시설·운동시설 등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로는 신뢰와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신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하였다. 네트워크는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와 단체참여의 수를 구분하였다. 지인에 대한 네트워크는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지내는 이웃이 많은지, 돈을 빌려 줄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단체참여의 수는 각 단체의 가입여부를 묻고, 가입한 단체의 수를 알아보았다.[9]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은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로 측정하였다(Diener 2009). 이 변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까이

9) 단체의 종류는 10가지를 질문하였다. ①종친회, ②동창회·향우회, ③지역활동(반상회·부녀회 및 분리수거 등), ④직장 내 친목단체, ⑤종교단체, ⑥문화·취미동호회(인터넷 동호회 포함), ⑦교육·교사·학부모 단체, ⑧시민단체, ⑨정부관련 활동(공청회·자치위원회 등), ⑩정치단체(정당 등)이다.

살고 있는지, 좋은 조건에서 사는지, 인생에 만족하는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소유해왔는지, 지금 현재의 삶을 바꾸지 않을 것인지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

이러한 측정변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여 각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각 변수간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변수인 생활환경 지표 5개와 사회자본 3개의 요인 등을 구분하여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조사 설계

본 연구는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인천광역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10] 인천광역시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각 구별 인구비율에 따른 표본추출 방법인 비례층화표본추출(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1〉에서 2011년 6월 기준으로 각 지역구별 인구와 비율, 그리고 본 연구의 표본과 비율을 명시하였다.

10) 인천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천에 위치한 지하철역, 커피숍 등 여러 인원이 밀집해 있는 장소와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1〉 지역 인구와 표본 비율

	부평구	남동구	남구	서구	계양구
인 구 (명)	570,817	501,696	426,943	430,368	349,141
비 율 (%)	20.2	17.7	15.1	15.2	12.3
표 본 (명)	65	49	37	52	39
표본비율(%)	21.7	16.3	12.3	17.3	13
	연수구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인 구 (명)	286,882	97,528	80,856	67,458	19,163
비 율 (%)	10.1	3.5	2.9	0	0
표 본 (명)	30	19	9	0	0
표본비율(%)	10	6.3	3	0	0

이 논문에서의 전체 표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300명의 시민으로 다음의 〈표 2〉과 같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그 특성을 제시하였다. 남성이 129명(43%)이고, 여성이 171명(57%)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

〈표 2〉 인구통계학 분석

변수	구 분	빈도 (명)	비율 (%)	변수	구 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29	43	직업	대학(원)생	48	16
	여성	171	57		전문직	28	9.3
연령	20대	92	30.7		행정, 사무직	64	21.3
	30대	51	17		사업, 자영업	31	10.3
	40대	68	22.7		생산, 기술직	49	16.3
	50대	73	24.3		가정주부	47	15.7
	60대 이상	16	5.3		무직	10	3.3
소득	200만원미만	75	25		기타	23	7.7
	200-400만원	108	36	주거	단독주택	54	18
	400-600만원	75	25		아파트	171	57
	600만원 이상	22	7.3		연립주택	57	19
	잘 모르겠다.	20	6.7		상가주택	11	3.7
종교	기독교	104	34.7		기타	7	2.3
	불교	40	13.3	학력	고졸 이하	136	45.3
	천주교	41	13.7		대졸	152	50.7
	무교	109	36.3			12	4
		6	2			300	100

령대로는 20대가 92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대가 73명(24.3%), 40대가 68명(22.7%) 순이었다. 소득은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에 포함되는 인원이 108명(36%), 종교는 기독교가 104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가장 많은 직업군이 행정·사무직으로 64명(21.3%)이었다. 거주하는 곳은 아파트가 171명(57%)으로 절반이 넘었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152명(50.7%), 고졸이 136명(45.3%)으로 조사되었다.

Ⅳ.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각 변수들을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다. 설문문항에서 독립변수는 소득, 건강, 가족, 공공서비스, 생활편의시설로써 각 변수를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건강 문항은 3개, 생활편의시설 문항의 2개가 요인 적재량의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다.[11]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각 문항이 변수들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후 내적 일관성(신뢰도)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측정문

11) 요인적재량이 0.4 미만이면 공통성이 낮기 때문에 요인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송지준, 2015: 82). 이 과정에서 문항이 제거되면 해당 변수를 측정하는 정밀도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건강과 생활편의시설 만족도의 문항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이 모두 적합하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았다.

항들의 평균점수를 요인 값으로 사용하여 변수간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3〉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량 및 신뢰도 계수

구분	측정변수	최종 문항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소득	현재의 수입원에 만족	0.807	0.916
	일한만큼 보상을 받음	0.763	
	가족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음	0.769	
	소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0.798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음	0.806	
	교육과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함	0.796	
	저축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	0.762	
건강	건강하다고 생각	0.859	0.818
	건강에 대해 자신 있음	0.879	
	건강관리 방법을 알고 규칙적으로 운동 함	0.683	
	적절한 체중을 유지 중	0.598	
가족	가족 간 의사소통이 순조로움	0.814	0.929
	친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0.714	
	가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0.85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적당은	0.769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함과 행복을 느낌	0.842	
	가족 간에 서로 적절히 도와주고 있음	0.852	
	가족을 위한 희생은 즐거움	0.779	
공공서비스	거리 교통안전 대책에 만족	0.59	0.894
	거리범죄가 없어 안심하고 생활함	0.813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만족함	0.788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음	0.774	
	행정 공무원의 친절에 만족	0.818	
	경찰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음	0.751	
	주변 도로의 연결망이 잘 되어 있음	0.654	
생활편의시설	적절한 공원 시설이 있어 만족	0.78	0.885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잘 되어 있음	0.639	
	주변에 도서관이 있어 만족	0.765	
	공연장이나 극장을 이용하기에 편리함	0.753	
	주변에 운동시설이 있어 만족	0.864	

삶의 질	대체로 나는 내가 꿈꾸던 삶에 가깝게 살고 있음	0.69	0.905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음	0.695	
	내 인생에 만족함	0.707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어 왔음	0.658	
	현재와 같은 삶을 다시 살고 싶음	0.741	
신뢰	가족을 신뢰	0.615	0.829
	친구를 신뢰	0.792	
	주위사람들을 신뢰	0.836	
	일반사람들을 신뢰	0.587	
네트워크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알고 있는 편	0.565	0.679
	알고 지내는 이웃이 많은 편	0.722	
	주위에서 돈을 빌려 줄 사람들을 알고 있는 편	0.779	

2. 각 변수별 평균 및 상관관계

다음의 〈표 4〉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한 8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각 변수

〈표 4〉 각 변수별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소득	건강	가족	공공	생활편의	신뢰	지인	단체참여	삶의질
소득	4.83	1.88	1								
건강	5.81	1.77	.367**	1							
가족	6.68	1.74	.216**	.316**	1						
공공서비스	5.25	1.64	.259**	.269**	.229**	1					
편의시설	6.21	1.93	.239**	.243**	.186**	.477**	1				
신뢰	7.02	1.6	.254**	.257**	.571**	.231**	.164**	1			
지인	5.77	1.93	.130*	.201**	.331**	.263**	.196**	.389**	1		
단체참여	3.5	2.9	−0.025	−0.054	0.02	0.099	0.016	0.012	.138*	1	
삶의질	5.37	1.82	.556**	.444**	.418**	.386**	.481**	.383**	.278**	0.04	1

*p〈0.05, **p〈0.01에서유의함

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10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단체참여는 단체참여의 수를 물었다. 10점 척도로 측정한 독립변수 중에서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타났으며(4.83), 신뢰가 7.02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가족 만족도(6.68), 생활편의시설(6.21), 건강(5.81), 네트워크(5.77), 공공서비스(5.25) 순으로 평균이 도출되었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5.37로 중간점수를 상회하였다.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네트워크 수와 단체참여에서는 다수의 관계가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었다.[12]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r=0.8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에 직면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간 상관관계가 모두 r=0.6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에서는 자유로웠다.

3.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패 〈표 5〉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민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삶의 질과 사회자본을 각각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학력, 직업, 연령 등의 변수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8.642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모형은 54.7%(R2=.54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13]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12) 단체참여는 소득·건강·가족·공공서비스·생활편의시설·신뢰·삶의 질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13)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Durbin-Watson은 2.218로 2에 가까워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통제변수에서는 성별과 학력 등이 유의미하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별이 남성일수록 삶의 질이 낮아졌으며(β=-.329), 학력은 대학교를 졸업할수록 그 이외의 학력을 지닌 자들보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β=.288).[14]

〈표 5〉 인천광역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삶의 질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제변수		성별	.165	−.329*	−1.993	.023
		학력	.169	.288*	1.700	.045
		직업	.181	−.032	−.176	.430
		연령	.071	−.103	−1.459	.073
독립변수	생활여건	소득	.044	.326***	7.448	.000
		건강	.048	.147**	3.074	.001
		가족	.053	.197***	3.707	.000
		공공서비스	.054	.070	1.288	.099
		생활편의시설	.045	.227***	4.998	.000
	사회자본	신뢰	.058	.100*	1.711	.044
		지인	.043	.029	.671	.251
		단체참여	.029	.065*	2.229	.013
모형적합성			• R=.627, • R2=.547, • Adj. R2=.528 • F=28.642, • Sig=.000***, • Durbin-Watson=2.218			

a) 계수는 비표준화
b) 성별: 0=여자, 1=남자
c) 학력: 0=대졸 이외, 1=대졸
d) 직업: 0=행정·사무직 이외, 1=행정·사무직
*p〈0.05, **p〈0.01, ***p〈0.001에서 유의함[15]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생활여건 중에서 공공서비스 만족도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14) 본 연구에서의 학력은 대졸이 152명으로 가장 많고, 직업은 행정·사무직이 64명으로 많아서 이를 기준지표로 선정하였다. 즉, 학력이 고졸이하 혹은 대학원 이상이면 '0'에 속한다. 직업 역시 행정·사무직 이외라면 '0'에 속한다.

15) 이 연구에서는 가설을 단측검정으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의 유의확률(p)을 2로 나눈 값으로 가설 채택 유무를 결정하였다. 통제변수의 유의확률 역시 편의상 2로 나누었다.

있었다. 우선 소득의 만족도(β=.326)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주변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β=.227)였고, 가족의 만족도(β=.197), 건강만족도(β=.147)의 순으로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자본 변수 중에서는 신뢰변수(β=.100)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단체참여가 많을수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65).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가설 1,2,3,5,6,8 등을 채택하였고, 가설4와 7은 기각되었다. 다음의 〈표 6〉에서 가설의 검증 여부를 제시하였다.

〈표 6〉 가설설정

분류	가 설	결과
1	소득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건강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가족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5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7	지인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8	단체참여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구별로 비례를 할당하여 표본을 표집하는 비례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설을 검증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건강·

가족·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생활환경의 만족수준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자본 변수에서는 타인을 신뢰할수록, 그리고 단체에 참여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중에서 개인·경제적 측면을 측정한 3개의 변수들 중에서 소득과 건강, 가족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행정 측면의 변수인 공공서비스와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중에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생활환경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국내 선행연구와의 결과와 유사하다(박종민·김서용 2001; 이영균·김동규 2007). 특히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지역사회·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통해서 정부차원에서 주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사회의 편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치단체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도시가 소득이나 일자리 등의 경제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와 여가시설이 특화된 지역적 특징이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고명철·최상옥 2012, 110)

둘째,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확충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유인책이 있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단체참여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의 향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개인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Requena 2002; Bjørnskov 2003; Mulder et al. 2005; 박희봉·이희창 2005),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결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 하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인데(Verba and Nie 1972), 다양한 사회계층이 여러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하위계층부터 상위계층에 이르기까지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홍보를 실시함으로써(이승종·김혜정 2011),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에 사용된 표본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표본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인천에 거주한 외국인들을 분석대상에서 누락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각 구별 표본비율이 일정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 변수는 서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생활환경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거나, 이 두 관계가 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면,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본 연구가 인천광역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접수)일 : 2017. 04. 24 심사(수정)일 : 2017. 05. 11 게재확정일 : 2017. 06. 14

참 고 문 헌

강소랑 · 문상호(2012), 「가족관계 사회자본이 중 · 고령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6(3): 271-298.

고명철 · 최상옥(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고명철(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47(2): 1-30.

구교준 · 임재영 · 최슬기(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김미숙 · 조경호(2000),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0(2): 86-122.

김병섭 · 최성주 · 최은미(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김재홍 · 이은우 · 이재기(1998), 「다년도 · 다차원 거리지표 모형을 이용한 한국 도시의 삶의 질 비교연구」, 지방연구 14(1): 21-45.

김진옥(2000), 「서울과 OECD 국가의 도시간 삶의 질 비교 분석」, 서울도시연구 1(1): 3-18.

김태룡 · 오승석 · 주기남 · 안희정(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2): 135-155.

김태룡(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27-51.

박길성(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109-139.

박종민 · 김서용(2001),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43-458.

박희봉 · 이희창(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분석- 경제 · 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서승환(2005),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도시연구 6(2): 21-38.

소진광(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7.

송지준(2011),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송건섭 · 권용현(2008), 「광역도시권의 「삶의 질」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4): 87-107.

오영석 · 이곤수(2006),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 효과: 경주시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59-180.

유석춘 · 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87-125

이숙종 · 김희경 · 최준규(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1): 149-170.

이승종 · 김혜정(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이영균 · 김동규(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이태종 · 이곤수 · 송건섭 · 이승철(2005),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간 「삶의 질」의 비교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211-229.

이희길 · 심수진(2010), 「사회지표 개편 탐색」, 한국사회 11(1):47-77.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조경호 · 김미숙(2000),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 간 삶의 질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34(3): 27-45.

하혜수(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81-95.

한석태(2008),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42(3): 441-461.

한세희 · 김연희 · 이희선(2010),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37-59

한준(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2): 67-94.

Bjø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1): 3-16.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 1359-1386.

Burt. R.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2): 339-365.

Coleman, J.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ciology* 94: S95-120.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

Diener, E. (Ed.) 2009. *The science of well-being*. New York: Springer.

Donovan, N. and D.S. Halpern, 2003. *Life Satisfaction: The State of Knowledge and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한준(2015) 에서 재인용.

Drukker, M., Kaplan, C., Feron, F., & Van Os, J. 2003. Children'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neighbourhood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social capital. A contextual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57(5): 825-841.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89-125.

_____.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 11176-11183.

_____.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 reply to Hagerty and Veenhov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 429-443.

Evans, P.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6): 1119-1132.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Grootaert. B and Bastelater. T. V. 2002.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World Bank

Gundelach P and Kreiner S. 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Cultural Research* 38(4): 359-386.

Glaeser, E. L., Laibson, D., & Sacerdote, B. 2002. An economic approach to social capital. *The Economic Journal* 112(483): F437-F458.

Harpham. T. et als.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 within Health Surveys. *Health Policy and Planning* 17(1): 106-117.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1435-1446.

Kay, A. 2006. Social Capital, the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1(2): 160-173.

Lin. 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s* 22(1): 28-51.

_____.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P.

Liu. BC. 1973. Quality of Life Indicators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187-208.

Myers, D. 1987.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a Focus on Local Trends. *Urban Affairs Review* 23(1): 108-125.

Mulder K and Costanza R and Erickson J. 2006. The contribution of built, human, social and natural capital to quality of life in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communities. *Ecological Ecomomics* 59(1): 13-23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Ostrom, E., & Ahn, T. K. 2003. *Foundations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Portes. A. 2000.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Sociological Forum* 15(1): 1-12.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quena, F. 2002. Social Cap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Workpla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3): 331-360.

Slottje. DJ. 1991.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4): 684-693.

Sirgy, M. J., Rahtz, D. R., Cicic, M., & Underwood, R. 2000. A method for assessing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based services: a quality-of-life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9(3): 279-316.

Sirgy, M. J., Gao, T., & Young, R. F. 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2): 81-105.

Subramanian, S. V., Kim, D., & Kawachi, I. 2005. Covariation in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self rated health and happiness: a multivariate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the USA.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9(8): 664-669.

Veenhoven. R.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11(1): 33-45

Verba, S., &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Harper & Row.

Woolcock, M & Narayan D.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Yip, W., Subramanian, S. V., Mitchell, A. D., Lee, D. T., Wang, J., & Kawachi, I. 2007.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35-49.

국 문 초 록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

신상준(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다. 개인의 생활환경은 소득, 건강, 가족, 공공서비스, 생활편의시설 등이고, 사회자본 변수는 신뢰, 단체참여, 지인 네트워크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표본은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구별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취합하였다. 설문 취합 후,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생활환경 변수 중에서는 소득의 만족도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편의시설, 가족, 건강 등의 순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자본 변수는 신뢰변수가 가장 크게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으며, 단체참여가 많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제시한 시사점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의 필요성 등이다.

주제어 : 인천광역시, 삶의 질, 생활환경, 사회자본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Capital on the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the citizen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Shin, Sangjoon (Senior Researcher, The East Asia Collaboration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is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individual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capital on the quality of life for Incheon citizens.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citizens' quality of life are the personal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capital. Individual living environment factors consist of the satisfaction with income, health, family, public service, and living facilities. Social capital factors are composed of trust, group participation, and acquaintance network.

The survey data was collected by using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method for residents in Incheon.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with the SPSS 18.0 program.

As a result, the satisfaction of income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living environment variables, and the quality of life was affected by the satisfaction of living facilities, family, and health. The factors of trust among social capital variables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quality of life tended to increase as the group participation increased.

Based on the findings, I suggested that the social infra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by inspecting and securing the living facilities. Besides, government need to implement

the activities for public relations so that various social groups can join in some organizations to expand social capital.

Key words: Incheon Metropoitan City, the quality of life, living environment, social capital